

『산림경제』 「구급」의 특성과 의사학적 의의*

박 상 영**

<目次>

I. 서론	V. 자생적 의학의 성숙과
II. 주요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산림경제』 「구급」
III. ‘구급방’의 특성	VI. 결론
IV. 『산림경제』 「구급」의 편제 상의 특징	

<국문 초록>

본고는 洪萬選의 『山林經濟』 「救急」의 특성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산림경제』 구급은 기존의 구급방을 이었으면서도 기존의 구급방이 갖추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 항목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어 구체성이 강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책 한 권으로 벽지에서 온갖 구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목이 다소 난잡해져서 구성의 간이성은 해치게 되었다. 둘째는, 기존 구급방들이 대개 중국의 의서 위주로 참고 자료로 삼았다면 『산림경제』 「구급」은 『동의보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험방을 주재료로 삼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7세기에 우리 의학이 선언적인 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매우 독자적인 길을 걸었

* 본고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문헌 기반 <한의학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 (K15670)’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면을 통해 사의를 표합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park30@kiom.re.kr

으며 그 결실이 이 시기에 다른 서적들로 맺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특히 의사가 아닌 유학자에 의해 의학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서적이 쓰여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의학지식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의 간이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의학의 대중화 및 토착화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의학, 홍만선, 산림경제, 구급방, 경험방

I. 서론

조선후기 실학 및 실학자에 대한 연구 가운데 크게 비어 있는 부분은 醫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학이 조선후기 실학에서 매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의학 자료를 다소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매우 특기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金蓼小抄」 이외에 燕巖 朴趾源(1737-1805)의 본격적인 의학서로 보이는 서적이 발굴된 것으로 보더라도 실학자들에 대한 온전한 연구를 위해서는 의학 자료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流巖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 중 「救急」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남긴 의학에서 반드시 확인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山林經濟』는 조선후기 다양한 필사본을 남겼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 隱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서적들이 나올 만큼 파급력이 지대한 서적이었다. 특히 ‘조선후기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이라 불리는 楓石 徐有榘(1764-1845)의 『林園經濟志』가 『산림경제』에서 그 정신과 체계를 빌어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제』 자체의 전체적 조망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학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풍부한 연구의 기초 확보를 위해 『山林經濟』, 「救急」

의 醫史學的 위치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주요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三木榮 및 金斗鐘의 연구 이후, 『산림경제』 중 의학부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척이 없다가 의사학 및 서지학 분야의 연구가 몇 편 나온 바 있다. 그 가운데 본고와 관련하여 의미 깊은 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김대원, 「18세기 民間醫療의 成長」, 『韓國史論』 3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8. pp.187-238.
- ② 盧基春, 逸失 醫學文獻 『尹方』의 문헌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권 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1. pp.103-124.

이 가운데 ①은 『산림경제』, 「구급」에 보이는 단방 처방들을 18세기의 민간의료의 성장이라는 측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산림경제』, 「구급」은 『濟衆新編』·『方藥合編』 등 이 책의 전후에 크게 유행하는 서적들과 같이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후기 의료혜택이 넓어짐에 따라 처방은 오히려 단순화되고 널리 파급된다는 것이 핵심 논점이다. 연구의 핵심이 매우 잘 정리된 편이며 논리가 명쾌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산림경제』에 보이는 「구급」이 『濟衆新編』·『方藥合編』처럼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醫書와 동일선상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조선후기 단방 처방을 많이 남긴 서적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의서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가? 단방에 대한, 혹은 간이처방에 대한 수요가 조선후기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문제제기는 것은, 『산림경제』에서의 「구급」이 조선시대에 허다하게 출현했던 일반적인 구급방이나 조선전기부터 간이방을 대거 남겼던 경험방과는 어떠한 비교도 없이 『동의보감』처럼 본격적인 종합의서와 비교되

고 있기 때문이다.

②는 『산림경제』에 자주 인용되는 ‘尹方’이라는 인용 표시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尹方’을 17세기 중엽 이후 또는 18세기 초 이전에 海平 尹氏家에서 우리나라 의인들의 경험방을 수집하여 만든 서적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서적에 대해 의학의 전 분야를 포괄한 종합의서였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다양한 온갖 증세에 대해 처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경제』, 「구급」에만 인용서로서 남아 있는 서적이, 다시 말해 구급방 성격의 서적에 남아 있는 인용문이 여러 증상을 다 다룬다고 해도 구급방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산림경제』, 「구급」이 종합 의서적 성격을 지녔다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주장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인용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구급방’의 특성

『산림경제』, 「구급」에 앞서 구급방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구급의학은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의학 형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鄉藥救急方』을 필두로, 세종대의 「救急方」, 세조대의 「救急方」, 「諺解救急方」,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救急良方」, 「救急易方」, 「家庭救急方」 등 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까지 끊임없이 비슷한 계열의 서적이 나온 바 있다.¹⁾ 이 서적들의 항목 구성에서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鄉藥救急方』 이후의 救急方에서는 六氣를 염두에 둔 듯 中風을 목차 머리에 두고 외상 등을 뒤로 뺀 뒤에 분류하기 힘든 것들을 그 뒤에 둔 것이다. 특히 허준의 『諺解救急方』부터 목차의 편제

1) 안상우·권오민·이정화, 『언해구급방(해제)』(『허준의학전서』 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2.

는 구급방이 한 방향으로 갈무리되기 시작하는 양상을 띤다. 허준의 『諺解救急方』 목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卷上 : 中風, 破傷風, 中寒, 陰陽易, 氣厥, 痰厥, 食厥, 尸厥, 卒死, 中惡, 鬼魘, 邪祟, 癲狂, 上氣, 頭痛, 心痛, 腹痛, 疝痛, 霍亂, 喉閉, 舌腫, 諸骨鯁, 誤吞金鐵, 誤吞諸虫, 飛絲入口眼, 眯目, 失音, 咳逆, 吐血, 衄血, 九竅出血, 眼睛突出, 失欠脫頷, 大便不通, 小便不通, 入井塚卒死, 自縊死, 溺水死, 凍死, 餓死.

卷下 : 諸獸(獸附人咬傷), 諸蟲傷, 諸蟲入七竅, 金瘡傷, 打撲傷, 墮壓傷, 筋斷骨折傷, 諸刺傷, 湯火傷, 飲食毒, 諸藥毒, 諸肉毒, 諸魚毒, 諸果毒, 諸菜毒, 蠱毒, 疫癘, 大頭瘟, 癰疽,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 煙薰毒, 難產, 胞衣不下, 急慢驚風, 痘瘡黑陷.

여기에 보이는 中風을 첫머리에 두는 편차 방식은 이후 救急方이라는 題下 서적의 목록에서 다소의 편차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이 없이 지켜진다.²⁾ 또 하나 허준의 『諺解救急方』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2) 六氣를 첫머리에 둔 편제가 서서히 완성되어 세련미까지 갖추게 된 것은 구급방 의서보다는 18세기 周命新의 『醫門寶鑑』을 거친 뒤 康命吉의 『濟衆新編』에 이르러서이다. 『濟衆新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卷之一 : 風(附風痺, 麻木, 歷節風, 破傷風, 瘧瘧), 寒, 暑, 濕, 燥, 火.

卷之二 : 內傷, 虛勞,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卷之三 : 五臟, 六腑, 蟲, 小便, 大便,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卷之四 : 頸項,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脈,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霍亂, 嘔吐, 咳嗽.

卷之五 :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瘰癧, 癩疫, 邪祟, 癰疽, 諸瘡, 諸傷, 解毒, 救急, 雜方.

卷之六 : 婦人, 胞.

卷之七 : 小兒, 痘疹, 麻疹, 養老, (新增).

卷之八 : 藥性歌(附新增).

이 목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제중신편』은 육기 다음에 내상 관련, 오장육부 관련, 외형 관련, 잡병 관련, 부인, 소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누어진다. 각 권마다 적지 않은 항목이 있지만 ‘六氣, 내상, 오장육부, 외형, 잡병, 부인, 소아’ 등 큰 카테고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해당 항목은 금세 찾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위급한 상황들을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웬만한 응급적인 상황들은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조대의 『救急方』 목차³⁾와 비교해서 훨씬 많은 목차가 형성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구급상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救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는 종합의서의 救急門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 구급문은 구급방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비교해보면 편차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救急門의 목차를 잠시 살펴보자.

十件危病, 中惡, 鬼擊鬼打鬼排, 脈候, 尸厥, 鬼魘, 鬱冒, 客忤卒厥諸證, 卒死, 脫腸證, 救自縊死, 救溺水死, 救凍死, 救餓死, 攪腸沙, 入井塚卒死, 蛇入七竅, 鍼灸法.

위에 제시한 『동의보감』 구급문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종합의서의 구급방은 일상적인 질환이 거의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中風, 中寒 등의 주요 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종합의서마다 편차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합의서에서는 해당 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굳이 救急門에 다시 넣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다. 救急門이든 救急方이든 당시까지 많이 읽혀진 의서를 최대한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救急方은 중

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제는 『동의보감』의 편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목차 면에서 보자면 육기의 전면배치는 조선시대 구급방에서 보이던 특색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3) 세조대의 『救急方』 목차는 다음과 같다.

卷上 : 中風, 中寒, 中暑, 中忤中惡鬼氣, 鬼魘鬼打, 卒死, 卒心痛, 霍亂吐瀉, 尸厥, 纏喉風喉閉, 骨鯁, 脫腸陰縮, 吐血下血, 大小便不通, 溺水, 自縊, 失欠領車蹉候, 金瘡.

卷下 : 箭鏃金刀入肉及骨不出, 湯火傷, 馬咬馬踏馬汗馬骨馬踢, 打撲傷損, 眯目, 諸蟲入耳, 菜毒, 菌毒, 砒霜毒, 魚肉毒, 虎咬, 獠犬毒, 諸蟲傷, 孕婦逆生難產, 胎衣不下惡血湊心, 血暈.

합의서의 구급문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웬만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허준의 『諺解救急方』에는 인용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⁴⁾, 우리는 『산림경제』, 「구급」과의 비교 이전에 우선 세조대 「救急方」의 인용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조대 「救急方」에서는 文頭에 해당 조문의 인용처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당시까지 유행하던 온갖 종합의서를 망라하고 있다.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다.

『聖惠方』, 『千金方』, 『經驗良方』, 『壽域神方』, 『經驗秘方』, 『衛生易簡方』, 『得效方』, 『葛氏備急方』, 『衛生簡易方』, 『朱氏集驗方』, 『聖濟總錄』, 『直指方』, 『管見大典良方』, 『澹療方』, 『本朝經驗』, 『葛氏肘後方』, 『衛生寶鑑』, 『百一選方』, 『醫方集成』, 『廣濟方』, 『和劑方』, 『衛生十全方』, 『備急大全良方』, 『居家必用』, 『孫真人』, 『經驗救急方』, 『簡易方』, 『簡要濟衆方』, 『事文類聚』, 『三和子方』, 『急救方』, 『集驗方』, 『鄉藥救急方』, 『延年方』, 『婦人良方』, 『產書』.⁵⁾

우선 눈에 띄는 것은 『鄉藥救急方』, 『本朝經驗』을 제외하고 인용서가 거의 모두 중국 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급방 계열의 서적은 많이 보이지 않고, 대개는 종합의서에 가까운 서적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합의서 편찬 시 참조하는 도서범위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救急方の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구급의 내용과 처방의 간이성 등이지 인용서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미라 하겠다. 이는 종합의서의 구급문의 내용을 확장한 것이 결국 구급방 계열 서적들이 보이는 양상이라는 말과 일치한다.⁶⁾

또 한 가지 특성을 더 들자면 처방의 간이화 경향이다. 우선 중국에서

4) 허준의 『諺解救急方』에 인용서 표시가 원래 없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현재 남은 필사본이 후대에 이루어진 필사이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 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용서는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정순덕, 「救急方の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12-13.

6) 이는 우리나라 민간의학 내용을 대폭 넣어 만들었다고 서문에서 밝힌 『村家救急方』도 크게 예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서적도 중국 서적을 중심으로 편제하였고, 우리나라의 처방들은 조금씩 곁들인 방식을 쓰고 있다.

유래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구급 시에 쓰는 처방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방 위주의 약재가 많이 보인다. 특히 곱벙이, 지네, 솔의 검댕, 솔 밑의 누런 흙, 수탉 벼슬의 피, 지렁이, 쇠 부스러기를 담긴 물, 말린 사람의 똥, 생강 등 우리의 일상에 널린 재료들을 약재화한 경향이 짙다. 또한 허준의 「諺解救急方」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복합처방이 거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湯劑로는 理中湯, 地髓湯이 보이고, 丸劑로는 蘇合香元, 清心元 등이 보이며, 散劑로는 白附子散이 보인다. 이외에는 이렇다 할 복합처방이 나오지 않으며 대부분은 단방이거나 두어 가지 약재를 섞어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쓰지 않고 인종을 꼭 누르는 등 가벼운 처치만 기재한 경우도 보인다. 그리고 침구법에서는 침보다는 뜸이 우선 시되어 많이 나오고, 침이 강조될 경우는 많은 부분 取血을 하는 경우이다. 침보다는 대부분 뜸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이미 세조대 「救急方」에서도 보이는 경향이며, 구급방 전반에 보이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전기에 이미 中風부터 시작하는 목차가 구급방에서부터 정착되게 된다. 둘째, 조선전기에 보이는 구급방의 처방들은 중국서적에서 처방이 연유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참고가 된 중국서적은 구급방류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서적인 경우도 많다. 셋째, 종합의서 속의 구급문에 비해 구급방은 다루는 구급상황이 매우 늘어나 있는데, 이는 종합의서 구급문에서는 다른 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독립적인 서적이었던 구급방은 서적 하나로 완결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구급상황을 다 다루고 있어서이다. 때문에 종합의서 구급문의 확장적인 모습이 구급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참고 서적이 대부분 중국 의서이지만 다루는 처방의 내용은 우리나라 여염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합처방 제시는 제한되어 있다. 다섯째, 침구법에서는 침보다는 뜸을 중시하였다.

언해를 달아두는 경우가 많다거나 이상의 내용을 특히 임상실제에서 보자면, 이런 서적들은 활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침보다는 뜬을 훨씬 중요시한 것도 임상에서의 침의 전문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산림경제』, 「구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V. 『산림경제』 「구급」의 편제 상의 특징

산골에 살다보면 성읍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고질로 오래 앓는 병이면 의원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아 침을 맞거나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 갑자기 급한 병을 만나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끝내 요절하게 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구급법을 기록하여 제10편을 삼는다.⁷⁾

이상은 『산림경제』, 「구급」의 서문이다. 서문에 밝힌 것처럼 이 책은 벽지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적이다. 때문에 고도의 의학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글을 깨우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처방에 쓰인 약재도 대부분 단방에 가깝거나 가벼운 처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존에 처방명이 있는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여 의학지식의 필요성이 감해지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침구법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침과 뜬 중에 뜬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의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구성임을 알게 하는 것들이다.

『산림경제』, 「구급」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라는 의미에서 종합서적 내의 구급문보다 구급방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자료들과는 양상을 달리하는 면들이 보인다. 우선 목록을 살펴보자.

7) 『山林經濟』, 「救急序」, “居在山林, 隔遠城邑, 沈痼彌留之病, 固可尋醫問症, 試以鍼藥, 而若值猝急之疾, 束手罔措, 遂致夭札者多矣. 茲錄救急之方, 爲第十.”

自縊死, 溺水死, 凍死, 入井死, 猝死, 中惡, 鬼擊, 鬼壓, 客忤猝厥, 尸厥, 痰厥, 食厥, 虻厥, 血厥, 氣厥, 中風, 中暑, 中寒, 傷寒, 陰陽易, 脫陽, 霍亂, 攪腸沙, 猝心痛, 猝腹痛, 猝疝痛, 猝頭痛, 猝吐血, 猝衄血, 九竅出血, 毛竅出血, 血暈, 船暈, 猝癲狂, 狐魅, 大便不通, 小便不通, 咳逆, 猝噎, 猝失音, 急喉閉, 失欠脫頤, 眼睛突出, 腸頭出, 齙唇, 唇腫, 舌腫, 腦背腫, 疔腫, 蛇纏瘡, 貓眼瘡, 櫻桃瘡, 燎瘡, 天疱瘡, 陰蝕瘡, 頭部癰疽癩癰灸穴, 手部諸腫, 足部諸瘡, 騎竹馬穴法, 鍼瘡出血不止, 破傷風, 丹毒, 癩疹, 諸中毒, 一切飲食毒, 熱麪毒, 豆腐毒, 燒酒毒, 諸獸肉毒, 諸禽肉毒, 諸魚毒, 蟹毒, 食生膾不消, 食魚肉不消, 魚肉蔬菜毒, 諸菜毒, 菌蕈毒, 苦瓠毒, 海棠毒, 諸果毒, 諸藥毒, 石藥毒, 金石藥毒, 金銀銅錫鐵毒, 蠱毒, 馬毒, 烟熏毒, 湯火傷, 熱油傷, 金刀傷, 砲矢傷, 打撲傷, 墮壓傷, 骨折筋斷傷, 手足折傷, 肢節脫解, 耳鼻舌傷斷, 陰囊傷破, 杖傷, 人咬傷, 熊虎咬傷, 牛觸腸出, 馬驢騾咬踢傷, 犬咬傷, 猪咬傷, 猫咬傷, 鼠咬傷, 蛇咬傷, 蜈蚣咬, 蜘蛛咬, 蠍蝮傷, 蜂螫傷, 雜蟲傷, 諸傷辟蠅蛆法, 諸蟲入耳鼻, 蜈蚣入耳, 蚰蜒入耳, 蟻子入耳, 誤吞諸蟲, 誤吞諸物, 諸骨鯁在咽, 芒刺在咽, 諸物入目, 飛絲入口舌間, 匙着口中, 諸物入肉, 魚骨在肚, 胎漏胎動, 難產, 胞衣不下, 產後諸病, 陰病, 血崩帶下, 小兒初生急病, 小兒客忤中惡, 驚風, 吐瀉, 疳瘡, 瘡疾, 癩癧, 蟲痛, 痘瘡經驗方.

우선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목차가 번다하리만치 매우 많아졌다는 것이다. 나열된 것만 보아도 142항목이다. 또한 구급방에서 보이던 中風부터 시작하는 패턴이 깨져 있다. 胎漏胎動부터 시작하는 婦人과 小兒 初生急病으로 시작하는 小兒 부분은 여느 종합의서에서처럼 부인·소아를 뒤에 묶는 것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내상, 외상을 지나 중독 부분 등이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항목 구성이 왜 이처럼 되었는지 의학적인 상식으로서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매우 많은 항목을 일일이 뒤져야만 그 항목의 해당처를 찾을 수 있을 지경이다. 이는 六氣를 앞에 두었으며 六氣, 내상, 오장육부, 외형, 잡병, 부인, 소아 등 큰 카테고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해당항목을 금세 추측해 들어갈 수 있는 『제중신편』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가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이나 의학적 의론 등 의학적인 배경지식 등을 요하는 것들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항목이 매우 자세하게 세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정황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서적의 독자는 의학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이론이나 진단법 등은 거의 필요가 없으며, 또 비슷한 항목을 묶어두면 일반 지식인이 해당항목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급 관련 상황이 죄다 나열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전기의 구급방을 잇되 더 세분화되고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지식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자료를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생긴 문제들로 여겨진다.

V. 자생적 의학의 성숙과 『산림경제』 「구급」

조선전기의 成冊된 형태의 구급방은 주로 중국의 주요 의서에서 주요 처방자료를 뽑되, 우리나라에서 처치할 수 있는 간단한 약재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부분 ‘중국의 주요 의서’가 책의 濫觴이 되었으며, 그것이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간이 처방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웬만한 간이 처방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간이처방을 다룬 예로 구급방 외에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經驗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李石澗經驗方』이 발굴된 바 있다. 학계에서는 이 서적을 『四醫經驗方』의 원저자 가운데 한 명인 李碩幹의 경험방을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李碩幹(1509-1574)은 퇴계 이황을 施療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임란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중국서적에서 찾을 수 없는 향촌의 독특한 처방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어 흡사 민간요법에 가깝게 느껴지는 자료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였다. 특히 이 책에는 우리의 주식인 죽과 밥을 소재로 한 간단한 처방들을 대거 수록해 놓았다. 웬만한 병증에 대해 죽과 밥만으로 대처가 가능할 정도라 할 수 있다.⁸⁾ 이 서적은 허준이 『동의보감』을 지어 東醫를 표방하기 이전에 이미 매우 한국적인 의학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이 시기 구급방 등 간이처방을 표방하는 서적들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차용한 반면, 이미 중국의 자료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처방으로 成冊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특히 중앙에서 떨어진 곳에서 약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과 연관된다.⁹⁾

8) 안상우·박상영·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이석간경험방』(『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 36), 『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pp.147-170.

9) 앞서 인용했던 『村家救急方』의 서문을 든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醫方과 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고 있었다. 어쩌다가 환자가 나를 찾아와 묻는 일 이 있으면 어떤 病證인지 확인하고 方書를 뒤져서 맞는 약을 찾곤 했는데, 약과 병이 서로 맞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환자에게 처방을 알려줄 즈음에 생각하여 보니 무슨 湯이라 하고 무슨 散이라 하고 무슨 元이라 하고 무슨 丹이라 한 것들은 醫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책을 덮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庖丁의 손에 칼이 없다면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만 같지 못하고 養由의 손에 활이 없다면 단도를 쥐고 붙어서 싸우는 것만 같지 못하듯이,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方書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 『村家救急方』이라고 했다.[余負累居村, 患無已病之醫, 多求得醫方藥書. 遇有病人來問, 則認其症, 閱其書, 得其藥, 喜其藥病之相適. 且命之先後, 思之則曰湯曰散曰元曰丹, 醫局所劑, 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 因廢書而嘆曰, 庖丁之手無刃, 則不如得一棒而斃, 養由之手無弓, 則不如操短兵而接, 方書之劑無材, 則不如得常材以救. 於是, 盡棄全方之書, 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效者, 編集一卷, 曰村家救急方.]” (번역문은 박수진·김순희, 『『村家救急方』의 書誌學的 研究』,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11-12. 참조.)

이처럼 약재수급 문제로 인해 한국적인 새로운 처방이 개발되고 그것이 성책되는 것은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신탄진 일대 ‘배마을’이라는 지명을 호로 삼았던 舟村 申曼(1620-1669)의 『舟村新方』, 이석간·蔡得沂·朴濂·許任 등 네 명 의사의 처방을 모은 『四醫經驗方』, 그리고 조선 후기 劉以泰의 『實驗單方』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책에는 간이처방이 대거 수록되었으며 이 처방들의 약재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종래의 구급방과 큰 차이를 들자면 침구 쪽이 강화되어 있고 침이 전면에 나온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四醫經驗方』의 모체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서적이 일본의 東洋文庫에서 발굴되었다. 바로 이석간의 후예라고 밝힌 李義泰의 『經驗方彙編』이라는 책이다. 책머리에 ‘李碩幹孫義泰彙集’이라는 8자가 보이는데, 책 표지의 ‘前間氏所藏’이라는 글자와 조합해보면 현재까지 존재확인이 되지 않던 이의태의 『경험방휘편』이 바로 이 책임을 알 수 있다. 三木榮가 『경험방휘편』에 대해 ‘前間恭作’이 소장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¹⁰⁾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목판 및 필사본이 대거 전하는 『사의경험방』의 모체가 된 서적이 바로 이 책일 것이며, 이의태가 17세기 경 사람이라고 할 경우, 이 책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책에는 조문마다 출전을 명기한 항목이 보이는데, ‘李’, ‘蔡’, ‘許’, ‘朴’, ‘東’, ‘杏’, ‘生’, ‘本’, ‘開’, ‘聞’, ‘奇’, ‘間’ 등 한 글자씩으로 표기를 해놓았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성이나 책이름 가운데 한 글자씩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서명 중 오늘날 알 수 있는 것은 ‘東’이라고 표기된 『동의보감』과 ‘聞’이라고 되어 있는 『聞見方』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는 17세기 당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하더라도 한 글자만 표기해도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서적이 상당히 있었으며 그 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서적일

10)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17.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러준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산림경제』, 「구급」으로 가서 살펴보자. 이곳에서도 처방의 원 출처를 일일이 다 밝히고 있다. 밝히고 있는 원 출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四要, 聞見方, 經驗方, 撮要, 直說, 丹心, 寶鑒, 文醫經驗方, 潘方, 白醫方, 俗方, 神隱, 神效方, 吳方, 尹方, 入門, 正傳, 爾雅, 李醫方, 林方, 潛潭, 全方, 周禮, 本草, 智異山僧方, 類說, 直指, 鍼灸經驗方, 鍼灸篇, 許方, 許任經驗方, 許任方, 回春.

이상에서 許方, 許任經驗方, 許任方은 모두 許任의 『鍼灸經驗方』을 의미하며, 鍼灸篇은 『동의보감』의 침구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四要[山居四要], 丹心[丹溪心法], 神隱[神隱志], 周禮, 本草[證類本草]¹¹⁾, 直指, 回春 등을 제외하면 인용서가 대부분 한국의 의서라는 사실이다. 특히 寶鑒[동의보감] 이외에 聞見方, 經驗方, 文醫經驗方, 潘方, 白醫方, 俗方, 神效方, 吳方, 尹方, 李醫方, 林方, 潛潭, 全方, 智異山僧方 등 우리나라 의서임이 거의 분명한 서적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특히 潘方, 白醫方, 吳方, 尹方, 李醫方, 林方, 全方, 許方 등 인명의 성과 ‘方’자가 결합하여 서적을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홍만선이 활약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인명의 성만 들면 누구의 책인지 알 수 있는 서적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經驗方彙編』의 저자인 이의태가 활약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이미 『동의보감』이 민간의 경험방에까지 침투하고, 경험방의 축적이 한국의 자생적인 의서를 새로이 이루어낼 만큼 성숙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 한 가지 특성은 서적을 구성하면서 四要, 撮要[고사촬요], 直說[농사직설], 爾雅,

11) 참고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의 『산림경제』에서는 ‘本草’를 ‘本草綱目’과 ‘證類本草’로 쉼어서 번역을 해 놓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산림경제』 내의 본초는 모두 『증류본초』에서 온 내용이다.

類說[지봉유설], 周禮 등 의서와는 무관한 서적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의학 이외 넓은 지식을 습득했던 당시 儒者 또는 儒醫들의 상황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의학지식 및 약재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실용이 가능하도록 전 영역에 걸쳐 의서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의학의 성숙은 이미 진척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동의보감』이 온전히 우리의학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면서 東醫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 동의가 내밀하게 파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히 103회나 인용되는 尹方을 보면 그 약물이라는 것이 볶은 소금, 오랜 기와, 흰 개의 피, 흰 패랭이, 방아공이 머리에 붙은 거, 생기름, 살아있는 쥐, 황토 진흙, 사람의 수염, 소금 가마니, 사람 똥, 때가 묻은 땀, 때가 묻은 동정, 지붕에서 샌 물, 고양이 침을 묻힌 생강, 수탉 빛의 피, 닭똥, 소금물, 개의 머리, 밤송이를 달인 물, 굼벵이의 즙, 순무의 즙, 문지방 아래의 흙 등 시골살이에서는 늘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산림경제』, 「구급」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 구급방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자생적 경험방의 축적이 보태어짐으로써 더욱 풍성해지고 온갖 종류의 구급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계기일 것이다.

VI. 결론

17세기 후반과 18세기는 실학이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한 준비를 연 시기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산림경제』라는 서적은 늘 실학에서 주요 서적으로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조선시대를 임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듯이 의사학을 『동의보감』 이전과 그 이후의 전개로 나누어볼 때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동의보감』 이전 이석간이라는 희대의 명의 이후 조금씩 축적되어왔던 우리 고유의 의서들이 새로운 의학 서적의 성책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산림경제』, 「구급」은 기존의 구급방을 이었으면서도 기존의 구급방이 갖추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 항목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어 구체성이 강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책 한 권으로 벽지에서 온갖 구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목이 다소 난잡해져서 구성의 간이성은 해치게 되었다.

둘째는, 기존 구급방들이 대개 중국의 의서 위주로 참고 자료로 삼았다면 『산림경제』, 「구급」은 『동의보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험방을 주요 자료로 삼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7세기에 우리 의학이 선언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매우 독자적인 길을 걸었으며 그 결실이 이 시기에 다른 서적들로 맺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특히 의사가 아닌 유학자에 의해 의학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서적이 씌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의학지식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의 간이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의학의 대중화 및 토착화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參考 文獻>

康命吉, 『濟衆新編』.

許 浚, 『診解救急方』.

洪萬選, 『山林經濟』.

김대원, 「18세기 民間醫療의 成長」, 『韓國史論』 3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8.

盧基春, 「逸失 醫學文獻 『尹方』의 문헌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권 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1.

박수진·김순희, 「『村家救急方』의 書誌學的 研究」,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안상우·권오민·이정화, 『언해구급방(해제)』, 『허준의학전서』 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안상우·박상영·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이석간경험방』,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 36,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정순덕, 「救急方の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Sallimyeongje's
'Gugeup(first aid book)' / Park Sang You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geup' section in Hong Man-Seon's Sallimyeongje. While Sallimyeongje's 'Gugeup' was a collection of existing emergency prescriptions, it also had various novel characteristics. First, due to the presence of various categories, it could be used by people lacking medical knowledge. Further, various emergency situations occurring in remote areas could be addressed using this book. However, the categories increased in complexity, thereby compromising the simplicity of the structure. Second, Sallimyeongje's 'Gugeup' used Dongeuibogam as well as various other empirical prescriptions from Korea as reference, in contrast to the existing emergency prescriptions, which mainly used Chinese medical literature as the reference material. This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practiced in the 17th century was unique, both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al applications, and outcomes were described in other texts from that period. Third, this text was significant as it was written by Confucian scholars, on behalf of people who did not practice medicine, and not by physicians. This not only indicates its simplicity i.e., a person without medical knowledge can understand it, but also provides circumstantial evidence of the popularity and naturalization of medicine.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ng Man-Seon, Sallimyeongje, Emergency prescriptions, Empirical prescriptions.

투고일 : 4월 27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enior researcher / park30@kiom.re.kr